

## 문학번역가의 과제 — 한국문학 영어번역가를 중심으로\* —

이 형 진  
(숙명여대)

Lee, Hyung-jin. (2021). The task of literary translators: a case with English translators of Korean literatur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3(3), 245-272.

The scholarly discussion on the task of literary translators has been significantly bound by Benjamin's critical essay in 1923 with a similar title. However, the discussion on Benjamin's essay could face limitations in its application in translation practice due to its conceptual and metaphysical dimension.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and analyze the major tasks, roles and qualifications of the English translators of Korean literature, focusing on the strategies and patterns of the successful English translations in order to raise social and scholarly recognition and identification of the remarkable achievements made by the literary translators who are already acclaimed abroad but frequently become subject to the harsh public condemnation and scorn by domestic critics and media. It is an immutable truth fact that there is always a reason for every successful translation, and this paper aims to categorize the ten most notable roles of those successful English translators of Korean literature, identifying their unique and critical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and highlighting the due recognition of the successful translators' significant achievements, which will remain as a genuine and invaluable task of the literary translators of Korean literature.

**Keywords:** English translation, Korean literature, literary translator, translator's task, reception strategy

---

\* 본 논문은 2021년 10월 8일 국립국어원과 한국통역번역학회가 주관하는 '2021 세계한국어한마당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의 제목에 사용된 ‘문학번역가의 과제’라는 표현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1923년 역사적인 글 「번역가의 과제」(Die Aufgabe des Übersetzers, The Translator’s Task)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번역에 대한 이론적 ‘순수언어’에 근거한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는 “원언어의 의미작용을 더 근원적인 것이나 더 우월한 것으로 설정하지도 않고, 번역 행위를 자기중심적 환원의 논리와도 철저히 분리시킴으로써 번역을 제3의 창조에 가까운 것으로 설명한다”(윤조원, 2001: 221)는 점에서, 글의 제목에 등장하는 번역가보다는 오히려 번역 행위와 번역 본질에 대한 담론에 초점이 맞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번역가의 역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큰 철학적 영향력을 구축한 대표 메타담론으로 자리잡았다. 메타담론의 특성상, 벤야민의 글은 번역가의 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로는 번역 현장에서 한계를 가지는데, 이는 아마도 벤야민이 기반하고 있는 ‘순수언어’가 어찌면 “아직 인간이 경험적으로 사용해본 언어가 아니며, 만약 사용했다 하더라도 바벨 이전의 언어일 수 있다는 신학적 가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언어”(윤성우, 2007: 187)라는 점에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번역가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벤야민의 번역이론에 대한 “무비판적 성역화”(이영훈, 2020: 481) 차원의 메타담론으로만 머물기에는 문학번역가의 현실적인 역할과 위상과도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벤야민의 메타담론과 문학번역가의 현장 사이의 괴리감을 좁히는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특히 ‘번역가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메타담론으로만 남으면, 문학번역에 대한 비평도 메타담론의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본 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다양한 학술논문이나 연구과제, 한국문학번역원 등 관련 기관의 연구보고서에도 자주 등장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문학번역가 역할 자체를 주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개별 문학작품의 번역 논의 속에서 번역가의 역할을 다루거나, 번역가의 원문 이해 능력이나 영어번역텍스트 재창조 역량 등 번역가의 번역 충실성과 가독성의 이상적인 조화를 강조하는데 그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그동안 외국문학의 한국어번역과 관련해서는

크고 작은 번역오류나 원문 이해 부족, 심지어는 엄연한 표절번역조차도 번역가 개인에 대한 자격 논란이나 직접적인 인신공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관행이나, 수많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작품들의 뛰어난 영어번역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다양한 형태의 번역 변형이나 개입, 오역 등에 대해서도 출발어권이나 도착어권에서 큰 논란이 없었던 수용 패턴을 감안하면, 최근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한국문학의 해외 영어번역가들에 대한 과도하고 신랄한 오역 지적이나 부적절한 인신공격은 비평의 기본적인 균형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문학번역은 비평가의 번역비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번역독자를 다양한 층위에서 이어주는 유일한 수단이자 전략의 축으로서 존재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비평의 메타담론적인 성격과는 달리, 문학번역은 메타담론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본 연구는, “해외 문학계에서 작품성을 인정받는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서에만 국내 학계의 번역비평이 집중되고 그 대부분의 논의와 분석은 오역 논의와 번역가의 자격 논란으로 귀결되는 패턴의 반복”(이형진, 2018: 202)에 대한 문제 제기의 차원에서, 이미 성공적인 번역 결과물을 산출한 한국문학 영어번역가들의 유의미하지만 제대로 인식조차 되지 못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의 유의미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기존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고자 한다. 이 같은 차별성은 논문의 제목에도 상징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 II.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와 번역비평

문학번역 관련 가장 주목받는 이벤트 중 하나인 매년 10월 초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시즌이 될 때마다 그동안 문학계와 출판시장, 학계, 언론은 노벨상 열기로 뜨거워지기를 수십 년 반복해왔지만, 정작 노벨문학상 수상작품의 한국어 번역 문제나 오역 관련한 학술적 논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은 많지 않다. 그러나 노벨문학상 위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맨부커 인터내셔널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2016년 수상한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의 영어번역 *The Vegetarian*(『채식주의자』)이나, 해외에서 상업적으로, 문화적으

로 가장 성공한 한국문학 영어번역으로 손꼽히는 번역가 김지영(Chi-young Kim)의 영어번역 *Please Look After Mom*(『엄마를 부탁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는 가히 문화 신드롬이라고도 할 만큼 뜨겁고 공격적이었다.

그중에는 번역 논란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학술적 담론과 비평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문학 영어번역의 목적과 과정,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의 책무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왜곡된 비난과 인신공격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의 책무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사회적 담론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에 대한 번역비평은 당연히 도착언어 문화권 내에서 현지 언론이나 전문 잡지 또는 한국학 관련 연구서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심재기, 2006: 242), 영어권 현지에서 한국문학 영어번역에 대한 관심이나 리뷰 자체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내 학자들이 한국문학 영어번역의 번역비평을 주도하거나 영어번역에 대한 최종 가치판단을 시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수용된 한국문학 영어번역텍스트의 효과적인 번역 전략이나 특징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국내 비평가들만의 오역 중심의 영어번역 비평문화는 자칫 국내에서 해당 번역텍스트에 대한 편견이나 폄하를 양산하고, 번역가의 사명감과 열정을 훼손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번역문화의 질적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영어권 현지 대학에서 동아시아문학을 담당하는 비한국계 교수들은 한국어 텍스트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경숙이나 한강 소설의 오역 논란에 대해 자신이 가치판단을 내릴 수 없다 보니, 국내에서 야기되는 번역 논란은 결국 해외에서 해당 번역텍스트나 논란이 된 번역가의 번역을 강의 교재로 채택하거나 학문적으로 접근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sup>1)</sup> 이 같은 왜곡된 번역

1) 학술적 목적보다 정보검색 차원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접속하는 위키피디아(Wikipedia) 웹사이트에 소개된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어번역가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 페이지는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가 약력보다 영어번역서 *The Vegetarian*을 둘러싼 한국에서의 오역 논란 내용이 훨씬 더 길게 언급되어 있다. 위키피디아에 소개된 그 어느 나라 문학번역가보다도 마치 데보라 스미스를 주홍글씨의 낙인 같은 오역의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린 국내 비평가들의 *The Vegetarian* 오역 논란이 과연 어떤 번역적 가치를 만들어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위키피디아에 실린 데보라 스미스 오역 논란 소개는, 작가 한강조차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을 온전히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면서, 작

비평문화의 원인 중 하나는 “비평가가 비평을 할 때 번역자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취하기 쉬운 우월적 태도에 있다”(이인규, 2015: 104)는 지적인 유의미하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쓰인 소설이나 시에 대해서는 작가의 개별 단어 선택의 적절성이나 표현의 어색함을 문제 삼아 작가를 인신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은 마치 단어 단위의 어색함이나 오역 찾기를 번역비평으로 생각하는 듯한 집착이 종종 발견되곤 한다. 번역서 표지에 자신의 이름 하나 올리는 것조차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문화적 약자에 해당하는 번역가를 대상으로 번역비평이 마치 문화 권력의 기제처럼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의 구체적인 역할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학술적 인식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번역가의 과제와 역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에 필요한 근본적인 전제조건은, ‘성공한 모든 번역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상식적인 당위성이다. 성공한 문학번역에 대한 비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번역독자들과 성공적으로 소통한 번역의 특징과 효과적인 번역전략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체적인 파악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특히, 해외 독자들이 열광하고 해외 비평가들이 높이 평가한 한국문학 영어번역의 성공 원인과 배경을 번역의 관점에서 찾아내고 분석해내는 것은, 성공한 번역텍스트를 번역독자의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번역비평가의 중요한 비평 역량의 입증이기도 하다. 이 같은 구체적인 번역비평 역량이 전제되어야만 번역텍스트의 장점 외에 단점과 결점도 찾아내고 분석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논리가 가능해진다.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의 과제에 대한 ‘기술적 연구’(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접근을 통해 번역가 역할의 범주와 종류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함으로써 외국문학 한국어번역가의 과제와의 차별성을 비교하고, 어쩌면 번역가의 인간적 역량의 범주를 넘어서는 혹독한 수준의 번역가의 과제를 이미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는 한국문학 영어번역가들에 대한 학술적, 사회적 인식 재고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

가 자신도 인정하고 수용하는 영어번역을 더구나 영어 비 원어민인 한국인 번역비평가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암시하고 있다.

### III. 영한 문학번역가와 한영 문학번역가의 번역환경 비교

최근 들어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매우 다양해지고 양적 팽창도 이루어졌지만, 정작 한국문학 영어번역의 주체인 번역가의 과제나 역할을 본격적인 주제로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인데, 이는 ‘번역가의 비가시성’ 출판문화만큼이나, ‘번역가는 반역가’(Traduttore, Traditore)라는 오래된 서구의 번역가 견제 문화로 인해 번역가를 원본의 오염이나 훼손의 원인으로 경계하는 문화적 편견과 학술적 편협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문학번역가를 주제로 하는 주목할만한 연구 중에서, 김대중(2016)은 『채식주의자』의 영어번역 분석을 통해 번역가의 과제를 벤야민의 번역이론을 통해 접근하면서 번역가의 철학적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심재기(2003)는 문학번역에서 번역 방향성, 즉, 외국어 문학의 자국어 번역과 자국어 문학의 외국어 번역의 차이가 번역텍스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논의하면서 이중언어자/이중문화권자 번역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형진(2009)은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Haruki Murakami) 소설의 영어번역가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영어권에서 성공한 일본문학 영어번역가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방향성을 참고로 제시한다. 그리고, 한영 문학번역가의 번역 과정을 가다머의 해석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창의적인 번역의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는 김가희(2020)도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의 위상에 대한 고민을 다룬다. 특히, 김자경은, 한국문학의 대표적인 영어번역가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한국문학 교수 브루스 풀턴(Bruce Fulton)이 번역가로서 작품의 번역 결정과 출판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과 출판 이후 현지에서 번역독자들과 소통하는 헌신적인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번역가가 처한 사회적 제약(뿐만 아니라), 번역 그 이상을 하는 번역가의 역할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2021: 71) 기회를 마련하면서 번역가 풀턴의 구체적인 역할의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문학 영어번역에 관한 기존의 연구 중에는 오역 논란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충실성과 가독성 두 가지 목표를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메타담론의 성격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영한 문학번역 환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한영 문학번역의 특수성과 해외 출판 현실에 대한 이해나 인식 부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영한 문학번역가와 한영 문학번역가의 과제의 근본

적인 차이는 국제번역가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Traducteur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ranslators)의 ‘번역가 헌장’(Translator’s Charter) 6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번역 언어 방향성과 관련해서 출발어에 대한 번역가 역량보다 도착어에 대한 번역가의 원어민급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

6조: 번역가는 자신이 번역하는 출발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도착어에 대해서는 완전히 숙달해야 한다.<sup>2)</sup>

또한, 1976년에 제정된 ‘유네스코의 번역가와 번역 법적 보호에 대한 권고안’(UNESCO Recommendation on the Legal Protection of Translators and Translations)의 5조 ‘번역가 교육과 업무 환경’(Training and working conditions of translators) 14(d)항도 번역 방향성을 원칙적으로는 외국어로부터 번역가의 모국어로 설정하면서 번역가의 원어민급 도착어 역량을 강조하는데, 이 같은 기준은 비문학텍스트보다 문학텍스트 번역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번역가는 가능한 한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자신의 모국어 수준으로 숙달된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sup>3)</sup>

번역 관련 국제기구에서 번역의 언어적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번역 행위의 목적이면서 번역의 최종 소비자인 도착어 번역독자와의 소통이 번역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번역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는 이기적인 소통행위가 아니라, 무엇보다

---

2) “6. The translator shall possess a sound knowledge of the language from which he/she translates and should, in particular, be a master of that into which he/she translates.” Translator’s Charter in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Traducteur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ranslators. (<https://www.fit-ift.org/translators-charter>)

3) “a translator should, as far as possible, translate into his own mother tongue or into a language of which he or she has a mastery equal to that of his or her mother tongue.” UNESCO’s Recommendation on the Legal Protection of Translators and Translations.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08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08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다도 원본텍스트를 읽지 못하는 상대방의 관점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소통의 가치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 1. 외국문학의 한국어번역 환경

영어권 문학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문학번역가의 경우, 첫째, 언어적 측면에서 번역가 대부분이 모국어인 한국어를 도착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번역가연맹의 ‘번역가 현장’이나 유네스코 권고안에서처럼 도착어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둘째, 출판의 측면에서, 한국처럼 외국문학 번역서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에서<sup>4)</sup>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서 출판은 국내 출판사 섭외와 설득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독자의 측면에서도 외국문학에 대한 독자 수요층이 튼튼한 국내 출판시장의 특성상, 해외 우수 작가나 작품의 한국어번역서의 수요나 지분 역시 일정 부분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노벨문학상’, ‘풀리처상’, 프랑스의 ‘공쿠르상’, 일본의 ‘아쿠타가와상’, ‘나오키상’, 아동문학 분야의 ‘뉴베리상’, ‘안데르센상’ 수상작품은 한때 국내 번역출판의 보증수표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는데, 해외 우수 문학상에 대한 국내 독자들의 큰 관심은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고 인정받고 싶다는 또 다른 방식의 표현”(곽효환, 2011: 177)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외국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는 외국문학 한국어번역가가 역량을 펼치는 기회의 측면에서 유리한 기반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외국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번역가 대부분은 상당한 번역 경력을 쌓은 전문번역가이거나 문학에 전공하는 대학교수인 경우도 많다 보니 국내 출판사 편집장 과도 상대적으로 대등한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4) 2007년 4월 15일자 「뉴욕타임스」 기사는 2004년 기준으로 한국과 체코를 번역서 비율 29%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번역서 발행국가로 손꼽았는데, 일본 8%, 중국 4%에 이어 미국은 가장 낮은 2.6%밖에 되지 않았다(Hoffman, 2007. 04. 15.). 미국 로체스터대학교의 전문 문학번역잡지 *Three Percent*의 제목 역시, 3%를 넘지 못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미국 출판시장의 번역서 비중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4년을 정점으로 이후 번역서 비중은 계속 낮아졌지만 최근 ‘2019 한국출판연감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출판된 신간발행 총수 63,476종 중에서 번역서는 12,093종으로 여전히 20% 가까운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김승일, 2020. 01. 21)

이 같은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에서는 도착어인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인 번역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마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처럼 아무리 한국어 역량이 뛰어난 외국인 번역가라고 하더라도 외국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에서 출판하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번역가의 도착어, 즉 한국어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성 부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즉, 외국문학의 한국어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출발어 텍스트 작가나 작품의 인지도만큼이나 이에 걸맞은 번역가의 한국어 역량이라는 점이 상식인 맥락에서, 외국문학의 한국어번역과 관련해서 번역 이외의 부수적인 거의 모든 국내 환경과 조건은 번역가에게 유리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 2.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환경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이 같은 상황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국문학 한국어번역가의 조건과 비교해서 접근하는 시도가 유용하다. 첫째, 언어적인 측면에서, 한국문학을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가 중에는 도착어인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국인 번역가의 번역이 초래하는 언어적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비록 한국어 역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번역가나, 도착어인 영어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도착어 현지의 한국인 교포 번역가에게서 가능성을 찾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국인 번역가나 외국인 번역가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국적이 아니라 도착어인 영어의 언어문화적 역량으로 귀결되는데, 아무리 영어가 세계어로 자리잡으면서 우리가 오랜 기간 학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의사소통 역량과 문학적 감성과 가치의 전달 역량은 언어의 결이나 깊이의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영 문학번역가가 가지는 유리한 지위는 부정하기 어렵다. 영한 문학번역가라면 한국문학의 영어번역도 당연히, 또는 웬만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치는 근거없는 오산에 불과할 만큼 문학번역에서 언어적 방향성은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모국어 수준의 영어 역량을 갖추지 못한 한국인 번역가의 어색한 번역은 아

예 영어권 현지의 문학전문 출판사의 출판 기준을 넘지 못하거나, 간혹 소형 출판사를 통해 출판되는 기회는 만들더라도 현지 독자와의 문학적 소통이 한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더욱이, 외국문학 작품의 영어번역은 이후에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로 번역출판을 결정하는 비영어권 현지 출판사의 판단에도 중요한 참고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문학 영어번역의 완성도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 해외 출판의 현실이다. 최근 국내 독자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의 사례를 아래 <표1>에서 살펴보면, 외국문학의 영어번역서만을 대상으로 하는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의 지난 몇 년간 수상 번역가들은 전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미권 번역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제번역가연맹의 ‘번역가 현장’이나 유네스코의 권고안처럼 번역가가 자신의 모국어를 번역 도착어로 설정하는 번역 방향성은 오늘날 문학번역 현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알 수 있다.

<표1>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번역가

연도	작가	국적	번역가	국적
2015	László Krasznahorkai	헝가리	George Szirtes, Otilie Mulzet	영국 캐나다
2016	Kang Han	한국	Deborah Smith	영국
2017	David Grossman	이스라엘	Jessica Cohen	영국/미국
2018	Olga Tokarczuk	폴란드	Jennifer Croft	미국
2019	Jokha al-Harhi	오만	Marilyn Booth	영국
2020	Marieke L. Rijnveld	네덜란드	Michele Hutchison	영국
2021	David Diop	프랑스	Anna Moschovakis	미국

둘째, 출판 관련해서 마치 영어권 출판시장에 한국문학에 대한 일정한 지분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발생하는 왜곡된 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학에 대한 영어권 현지 수요가 존재한다는 왜곡된 전제로 접근하다 보면 어떤 한국 작가나 작품을 먼저 번역하느냐가 항상 논란이 되는데, 이 같은 기대는 예를 들어 BTS의 신곡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미(A.R.M.Y) 팬들의 존재처럼, 다른 나라 문학이 아니라 바로 한국문학이기 때문에 작품을 선택하는 현지 독자층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다. 영어권 출판시장의 현실에서는 중국문학이나 일본문학과 달리 한국문학이기 때문에 번역되고 읽힌다는 일종의 문화적 지분의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은 비슷한 문화권인 아시아권 국가들 문학작품의 영어번역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모든 국가로부터 미국 출판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들 작품의 영어번역 외에도, 영어권 현지 의 쟁쟁한 자국 작가들의 신작과도 서점과 언론사 북리뷰에서 한 번이라도 기회를 만들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에 놓여 있다.

영어권 출판사의 입장에서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은 우선순위의 관심 대상이 아니며,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이유를 여전히 찾는 중인 현재진행형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영어권 현지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한국문학 전문 영어번역가나 현지의 명망있는 한국문학 전공 원어민 교수조차 영어권 문학전문 출판사와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번역 출판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외국 문학의 한국어번역 출판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국내 출판 환경과는 극명하게 차이 나는 현실에서, 한국에 기반을 두고 영어 역량도 아쉬운 한국인 번역가라면 한계는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즉, 문학작품의 번역뿐만 아니라 번역출판제안서 단계부터 출판사 편집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역량, 즉, 도착어인 영어로도 문학작품을 집필할 수 있을 정도의 문학적 감각과 언어적, 문화적 소통 역량은 절대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같은 전제조건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번역한 번역가 김지영의 *Please Look After Mom* 번역원고 초안을 읽다가 감동해서, 울면서 그 자리에서 원고를 다 읽고 나서 바로 출판을 결정했다고 고백한 미국의 문학번역 전문 출판사 ‘크노프’(Knopf)<sup>5)</sup>의 로빈 데서(Robin Desser) 편집장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6)</sup>

5) 크노프(Knopf) 출판사는 196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Yasunari Kawabata)의 대표작 『설국』(*Snow Country*, 1956), 무라카미 하루키(Haruki Murakami)의 『해변의 카프카』(*Kafka on the Shore*, 2005)뿐만 아니라 알베르 카뮈(Albert Camus), 198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ía Márquez) 작품의 영어번역과, 201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 미국 대표 현대 소설가 코맥 매커시(Cormac McCarthy),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 등의 작품도 출판한 미국의 대표적인 문학출판사 중 하나이다. 1960년에 랜덤하우스(Random House)에 인수된 후, 현재는 펭귄 랜덤하우스 출판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이다.

6) “9월 어느 목요일 밤이었다. 사무실에 앉아서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저녁에 참석해야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출판까지 마무리하더라도 한국문학에 대한 최소한의 지분조차 없는 미국 출판시장에서 한국문학 영어번역서가 자연스럽게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 현실이다. 외국문학의 한국어번역과는 달리, 세계적으로 주목받거나 세계적인 문학상 수상경력에 한국 작가도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한국문학을 해외 대학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교육 기회조차 미미한 현실에서, 현재의 일반 독자와 한국문학 작품을 이어주는 노력은 역경과 한계의 연속에 직면하면서 결국 번역가의 초인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만 남는다.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출판과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출판의 극명하게 다른 출판 현실에 대한 이해는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의 막중한 역할에 대한 재조명과 학문적, 사회적 인식 재고의 근거가 된다. 특히, 어렵고 초인적인 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미 해외의 독자들과 평론가들로부터 크게 인정받고 있는 한국문학 영어번역가들의 존재 의의를 재평가하는 계기로 만들고, 성공한 모든 문학번역에는 이유가 있다는 상식적인 진리를 재확인하면서, 성공한 번역의 단점에만 천착하기보다는 성공한 번역의 비결과 전략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분석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IV.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의 과제

문학번역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재현과 재창조의 특성상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전략을 ‘규범적 연구’(pr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로만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미 해외의 번역독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한 한국문학 영어번역의 공통점과 성공적인 번역전략의 근거를 찾아내는 ‘기술적 연구’의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거해서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크게 열 가지로 나누어서 영어번역가의 책무성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인식 재고를 강조하고자 한다. 다만, 이 같은 논의가 오히려 규범적 연구의 결과물처럼 작동해서 모든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에게 과중하게 요구되는

---

할 문학 이벤트가 있어서 원래는 한 챕터만 읽고 일어날 계획이었다. 몇 장을 읽다가 생각했다. ‘오늘 밤에는 그냥 이 책을 읽어야겠어.’ 그러고는 계속 읽었고, 울기 시작했다. 그때 출판을 결심했다.” (이영미, 2011. 10. 09)

부작용을 경계하며, 오히려 이 같은 초인적인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있는 번역 현장의 한국문학 영어번역가들의 역량을 적확하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학문적, 문화적 역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진부한 주장이지만 원본텍스트인 한국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해 역량이 다. 문학텍스트 번역은 단순히 언어적 치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본텍스트에 담긴 작가의 문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작품의 주제의식을 구축하는 글의 흐름과 역동성에 대한 번역가의 이해와 감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번역텍스트의 첫 번째 독자이기도 한 번역가에게 요구되는 분석적, 비평적 역량은 일반적으로 문학평론가에게 요구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번역은 일정 부분 해석이나 이해의 과정을 동반하지만... 해석하는 일에만 가치와 쟁점이 놓여 있는 것도 아니다. 번역은 오히려 분석을 통해 포착해낸 특수성과, 원문을 원문이게 해 주는 요인들, 즉, 문학작품을 문학작품이게 보증해주는 지점들을 파악”(조재룡, 2011: 432~433)해야 한다는 점에서 번역의 출발점이 비평의 시작이어야 한다. 이 같은 비평을 위해서 필요한 원본에 대한 충실성은 “원전의 내용과 문체, 그 핵심적인 성취를 간파하고 그것에 충실한 번역이 무엇인가를 묻는 가운데 실현된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비평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앞에서 강조한 바다. 작품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면밀히 읽는 자세”(윤지관, 2013: 189)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원본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비평 역량을 통해 원본텍스트 작가와의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번역가와 작가의 관계는 서로에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동료의식과 유사하지만, 작가의 작품을 다른 사람이 다른 언어로 다시쓰기 한다는 점에서 번역가에 대한 작가의 경계심과 이로 인한 미묘한 긴장감도 공존하는데, 번역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애정과 헌신이 전제되어야만 작가와 소통하면서 작품의 미학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다. 좋은 사례로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어번역 과정에서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한강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거의 모든 문장의 번역을 상의하면서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작가 한강이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경우를 들 수 있다.<sup>7)</sup> 우리 번역 현실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해외

7) “Part of the narrative that now surrounds Han’s international celebrity is that Smith only started learning Korean three years before taking on *The Vegetarian*.”

문학번역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특정 번역가가 특정 작가의 작품을 오랫동안 전담해서 번역하는 방식은 번역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둘째, 번역텍스트의 문학적 완성도다. 두말할 나위 없이 번역가 역량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번역텍스트다. 원본텍스트의 특징과 고유하고 창의적인 문학적 가치를 다른 언어로 효과적으로 재현해냄으로써 번역독자와 소통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역량은 문학번역의 핵심이다. 한국인 번역가나 원어민 번역가나 의 문제도 결국 본질적으로는 번역가가 도착어인 영어로도 작품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언어적, 작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소설가 배수아의 『에세이스트의 책상』(2003)을 데보라 스미스가 번역한 *A Greater Music*(2016)과 배수아의 『올빼미의 없음』(2010)을 데보라 스미스가 번역한 *North Station*(2017)을 출판한 미국 로체스터대학교의 문학번역 전문 출판사 ‘오픈 레터’(Open Letter)의 편집장 채드 포스트(Chad Post)는 ‘미국문학번역가협회’(ALTA: American Literary Translators Association)에서 수여하는 ‘전미번역상’(National Translation Award)의 심사과정을 설명하면서, 번역텍스트가 번역이면서도 동시에 영어로 쓰인 하나의 독립된 문학작품으로 읽힐 수 있는 유기적 완결성을 강조한다.

(미국문학번역가협회는) 심사 후보로 오른 번역서를 심사위원들이 번역텍스트면서 하나의 (독립된) 완전체 문학작품으로 판단하도록 심사 방향을 제시하는데, 특히, 텍스트의 번역은 뛰어나지만 원작의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작품이나, 원작의 구성은 뛰어나지만 한줄 한줄 직역으로 인해 번역의 문제가 발생하는 작품은 수상작이 되기 어렵다.<sup>8)</sup>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의 수상 직후 국내에서 일부 학자들과 언론으로부터 신랄한 오역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스미스의 영어번역 *The Vegetarian*을

Never mind that they negotiated every word of the translation, and that Han herself stands by it.” (Armitstead, 2018. 01. 15).

- 8) “The jury is encouraged to consider the (translation) book as a whole—both on its own terms and as a work in translation. A book that is very well translated but with a deeply flawed plot won’t end up winning; neither will a book that’s really good but filled with issues on a line-by-line basis that could’ve been addressed in the translation” (Kellman, 2019: 4).

수상작으로 선정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심사위원장이면서 영국 유수의 신문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의 문학섹션 편집장(1996~2013년)이었던 보이 드 톤킨(Boyd Tonkin) 위원장의 심사평은 문학번역텍스트로서 갖추어야 할 데 보라 스미스의 영어번역의 뛰어난 문학적 가치와 역할을 재확인하고 있다.

한강의 한국 소설 『채식주의자』를 데보라 스미스가 번역한 *The Vegetarian*은 잊지 못할 정도로 강렬하며 독창적인 소설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작으로서의 가치가 넘쳐흐르는 작품이다. (중략) 서정적이면서도 고통스러운 문체를 통해, 이 소설은 관습과 규범에 맞서는 중요한 선택이 여주인공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치밀한 구성과 정교함을 갖추고 충격을 가져다주는 이 소설은 독자들의 내면에서만뿐만 아니라 꿈속에서까지 오랫동안 큰 여운을 남길 것이다.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완벽한 판단으로 완성된 번역은 페이지 구석구석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원작의 아름다움과 공포의 조화를 그려내고 있다.<sup>9)</sup>

셋째, 번역출판제안서 작성 역량이다. 번역만큼이나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번역출판을 위한 출판제안서를 작성하고 현지 에이전트나 출판사에 보내고 소통하는 역할이다. 한국문학이나 작가에 대한 정보나 이해도가 낮은 영어권 출판사에게 번역출판제안서는 번역출판 판단의 1차 근거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번역가는 작가와 작품 및 번역가의 역량 소개뿐만 아니라, 번역서의 대상 독자층 설정, 작품의 홍보전략, 작가와 작

9) “*The Vegetarian* by Han Kang, 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Deborah Smith, is an unforgettably powerful and original novel that richly deserves to win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2016. ( ... ) Told in three voices, from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this concise, unsettling and beautifully composed story traces an ordinary woman’s rejection of all the conventions and assumptions that bind her to her home, family and society. In a style both lyrical and lacerating, it reveals the impact of this great refusal both on the heroine herself and on those around her. This compact, exquisite and disturbing book will linger long in the minds, and maybe the dreams, of its readers.” *The Vegetarian* Wins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2016 (<https://www.man.com/2016-man-booker-international-prize-winner>)

품의 확장성, 출판 기대 효과, 현지 대학의 동아시아 문학 수업의 교재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서 출판 에이전트나 출판사 편집장을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번역출판제안서 작성 역량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비서구권 출신 작가의 문학작품의 첫 번째 영어번역의 출판 결정은 전적으로 현지 출판사나 편집장의 판단과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현지 출판사나 편집장과 소통하는 역할은 언어적 문제 때문에라도 작가가 수행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온전히 번역가의 몫으로 남는다. 영어권 출판시장에서 현지 문학에이전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영어권 출판사나 편집장에게 원작의 특징과 고유한 가치를 설명하고 그들의 다양한 편집과 수정 요구사항에 대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을 설득하거나 작가를 설득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수십 명의 다양한 작가를 관리하는 문학에이전트보다는 결국 해당 작가에 대한 열정과 애정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번역가의 과제로 귀결된다.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어번역에서 ‘김치’, ‘반찬’, ‘양파즙’ 등과 같은 한국적인 문화고유어의 구체적인 번역전략에 관한 질문에 대해 작가 한강은 출판사 측의 최종 결정에 따랐다는 점을 밝혔으며,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는 영어권 독자에게 생소한 정보는 출발어 텍스트의 원래 의도와 달라지더라도 변형을 시도했으며, 이는 출판사와 여러 차례 상의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정호정, 2012: 278)는 사실에서도 다시 한번 번역가의 적극적인 조율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번역 출판시장과 번역독자와의 소통과 홍보역량이다. 영어권 독자 입장에서 처음 들어본 낯선 이름의 한국 작가 작품의 영어번역을 서점에서 굳이 선택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가족의 의미가 어떻게 문학적으로 구현되는지 궁금하면 굳이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엄마를 부탁해』)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중국, 일본, 대만의 문학작품의 영어번역 중에서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작품이 서점에 넘치는 것이 영어권 출판시장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번역 완성도를 넘어서 영어번역서가 영어권 독자와 미학적으로, 대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번역서의 생존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처럼 영어권 독자와 소통하는 역량으로는 언어적, 문화적 소통만큼이나 전략적 소통도 중요한데, 번역가가 번역만 완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판사나 번역 에이전트와 소통하면서 번역서에 대한 대중적 홍보와 학술적 관심을 끌어내는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인지도가 확보되거나 출판사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외국 작가의 경우에는 미국 현지의 출판사나 에이전트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출판사 크노프(Knopf)가 직접 나서서 『뉴욕타임스』에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엄마를 부탁해』)의 전면광고를 실으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경우(최수연, 2017: 555)를 들 수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신경숙과 한강의 미국 출판 에이전트를 담당하는 바바라 지트워(Barbara Zitwer)가 지난 10월 한국통역번역학회의 온라인 특강에서 강조했다듯이, 미국에서 번역서가 출판된 대부분의 작가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번역서를 각자 알아서 홍보해야 하며(지트워, *Global Not Local*, 2021. 10. 05), 이 역할은 한국에 있는 작가가 영어로 수행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번역가의 과제로 남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번역서에 대한 언론과 잡지의 북리뷰, 인터뷰, 북콘서트, 대학이나 도서관, 문화센터 특강 등을 들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번역가의 SNS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자신이 영어로 번역한 한국문학 작품을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미국 여러 대학과 현지 문화단체를 방문해서 소개하고, 지역의 다양한 독서모임이나 도서관, 동네 서점 등이 주관하는 작품 낭독회에서 작품을 소개하고 독자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한국문학 대표 영어번역가 폴턴 교수의 노력은(김자경, 2021: 52) 한국문학 영어번역가가 현지 출판계와 잠재 번역독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다섯째, 출판 이후 해당 작품이 해외 독자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역할도 번역가의 유의미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언론 매체의 북리뷰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홈페이지나 온라인 전문 북리뷰 사이트에 실리는 독자들의 후기, 인플루언서들의 SNS, 대학 강의 교재 채택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작가와 출판사와 소통하는 것은 번역가의 유의미한 역할이자 특권이 된다. 해외 출판의 경우, 번역가는 번역출판 이후에도 번역서에 대한 상당한 매니지먼트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 역할은 번역출판할 작가의 다음 작품 선정 과정에서도 기존 작품의 출판 현황과 독자 반응 분석에 기반한 번역가의 의견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해외 출판시장에서 해당 작

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

여섯째, 번역텍스트가 운 좋게 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거나 문학 관련 수상을 하게 되면 번역가도 현지 언론의 문화부 기자나 방송 관계자와 이메일이나 전화로 인터뷰에 참여하는 기회가 종종 주어진다. 영어가 자연스럽지 못한 작가와는 통역을 통해 인터뷰를 하지만, 영어가 능숙하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번역가라면 더욱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쉽다. 사실 현지에서 언론이나 미디어를 대상으로 도착어로 작가와 작품에 대해 가장 열정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번역가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번역가 김지영도 영어번역서 출판 직후에 온라인 서점 ‘아마존’의 소설 분야 10위에 진입하자마자 영국 BBC 라디오 방송의 인터뷰 요청을 받을 만큼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신준봉, 2011. 04. 09).

일곱째, 작가와 번역작품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항상 작가의 차기 작품 구상이나 다음 출판예정 번역작품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이 같은 질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번역가이기 때문에, 번역가는 현지 독자와 언론들이 작가의 새로운 작품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다섯 번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번역가는 자연스럽게 작가와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다양한 반응과 관점, 기대와 아쉬움까지도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어서,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가의 차기 번역작품 선정에도 설득력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문학)번역가는 번역 이외의 역할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번역할 작품도 제안하고 번역전략도 논의할 수 있으며 번역작품의 제목, 삽화, 표지 디자인까지도 추천할 수 있는데”(팔로포스키(Paloposki), 2017: 31)<sup>10)</sup> 이를 위해서 번역가는 자신이 번역한 작품 이외에도 작가의 전체 작품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며 개별 작품의 주제와 특징에 대해서도 파악함으로써 차기 번역출판 작품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10) “Translators often do much more than translate: they propose books, discuss strategies, compare editions and make suggestions on titles, typography and illustrations. While these processes of negotiation and management of the translation task are invisible to the public, there may still be traces left of them hidden away in archives.” (Paloposki, 2017)

여덟째, 한국문학 영어번역가가 번역한 작품이 영어권 번역독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작가의 차기 번역작품을 번역가가 추천해서 계속해서 대중적 성공을 거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번역가에게 기대되는 또 다른 과제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작가를 발굴해서 출판사나 에이전트와 연결시키는 역할이다. 번역가의 위상과 영향력이 커질수록 번역가는 자신이 번역하는 출발어권 문학에 대한 전문가로서 해외 출판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미 번역한 작가 이외의 다른 작가나 신진 작가를 발굴해서 번역출판을 추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까지도 수행하게 된다.

아홉째, 해외에서 주목받는 한국문학 작품의 영어번역은 자연스럽게 번역가 개인에 대한 대중적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학문적 배경을 쌓아서, 어떤 과정으로 한국문학 영어번역가가 되었는지, 어떤 계기로 해당 작가의 번역을 맡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어떻게 하면 번역가처럼 뛰어난 번역가가 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관심과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번역가의 성공스토리는 문학번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번역가 길을 선택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번역한 김지영도 자신의 영어번역이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이 박완서의 소설 등을 영어로 옮긴 1세대 한국문학 영어번역가 유명난의 딸이라는 사실과, 여의도여고와 미국 웨슬리안대학, 캘리포니아 헤이스팅스 로스쿨을 나오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LA카운티미술관에서 재단 기부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도(어수용, 2011. 04. 6) 공개될 만큼 번역가의 사생활까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 역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직후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문학번역가의 길을 꿈꾸기 시작했고, 영국에 한국문학 번역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21세의 나이에 막연히 한국어 독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도,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었으며, 한국어를 책으로만 6년 정도 혼자 배우다 보니 여전히 한국어 회화는 유창하지 않다는 고백까지 공개되면서(양용비, 2016. 05. 17) 오히려 자신의 번역 역량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번역가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특정 번역가에 대한 해외 한국문학 독자들의 신뢰와 선호도 구축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는 번역가 이름을 보고 번역서를 구매하는 번역가 팬덤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어권 현지에서 한국문학 신진 번역가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열째, 모든 한국문학의 영어번역가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을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역할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영어권 대학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는 교수 번역가라면, 번역텍스트를 한국문학이나 동아시아문학 수업시간에 교재로 소개하면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읽고 논의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학생들은 SNS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기회를 통해 영어권에서 작가와 작품의 인지도 확산에 기여할 수 있고, 교수들은 번역텍스트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학술논문으로 완성해서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작가나 작품의 학술적, 대중적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작가와 현지 학계 사이의 학술적 가교 역할도 할 수 있다.

<표2>는 『재팬 와이어리스 매거진』(JapanWireless Magazine)이 선정한, 일본 소설의 영어번역 중에서 영어권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베스트셀러 10권의 목록인데, 특히 표에 있는 일본문학 작품들의 번역가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도널드 킨(Donald Keene, 컬럼비아대 일본문학 교수),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Edward G. Seidensticker, 컬럼비아대 일본문학 교수), 제이 루빈(Jay Rubin, 하버드대 일본문화 교수), 에드윈 맥클레란(Edwin McClellan, 예일대 일본문학 교수), 필립 가브리엘(Philip Gabriel, 애리조나대 일본문학 교수), 스테픈 스나이더(Stephen Snyder, 미들베리대 일본학 교수), 메리디스 맥키니(Meredith McKinney, 호주국립대 일본문학 교수), 줄리안 네빌(Julianne Neville, 전문번역가), 그래엄 윌슨(Graeme Wilson,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연구원, 외교관), 메리디스 웨더비(Meredith Weatherby, 웨더힐(Weatherhill) 출판사 대표, 번역가), 매건 백커스(Megan Backus, 전문번역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일본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번역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영어권 국가에서 외국문학, 특히 동아시아 문학작품 번역이 미국 출판시장으로 유입되는 특정한 패턴과 방식, 그리고 번역 주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2> 제팬 와이어리스 매거진」이 선정한 ‘가장 유명한 일본문학 영어번역서 Top 10’

저자	번역서 제목	출판사	번역가	연도
Haruki Murakami	Norwegian Wood	Vintage Books	Jay Rubin	2000
Sōseki Natsume	Kokoro	Kenkyusha Gateway Penguin	Ineko Kondo Edwin McClellan Meredith McKinney	1948 1957 2010
Osamu Dazai	No Longer Human	New Directions	Donald Keene	1973
Ryunosuke Akutagawa	Rashomon and Seventeen Other Stories	Penguin	Jay Rubin	2009
Haruki Murakami	Kafka on the Shore	Knopf	Philip Gabriel	2005
Yasunari Kawabata	Snow Country	Knopf	Edward G. Seidensticker	1956
Kenji Miyazawa	Night on the Galactic Railroad and Other Stories	One Peace Books	Julianne Neville	2014
Soseki Natsume	I Am a Cat	Tuttle Publishing	Graeme Wilson	1972
Yukio Mishima	The Sound of Waves	Knopf	Meredith Weatherby	1956
Banana Yoshimoto	Kitchen	Grove	Megan Backus	1993
Ryu Murakami	Coin Locker Babies	Kodansha International	Stephen Snyder	1988

그리고 앞서 <표1>에서 소개했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번역가들의 약력을 살펴보면, 2015년 수상자인 헝가리문학 영어번역가 조지 시르테스(George Szirtes)는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 교수였으며, 조지 시르테스와 공동번역으로 수상한 오티리 멀젯(Otilie Mulzet)은 몽골문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2016년 수상자인 한강 소설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는 런던대 한국학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번역가다. 2017년 수상자 제시카 코헨(Jessica Cohen)은 이스라엘 문학 전문번역가며, 2018년 수상자 제니퍼 크로프트(Jennifer Croft)는 노스웨스턴대에서 비교문학 박사를 받은 폴란드 문학 전문번역가고, 2019년 수상자 마를린 부스(Marilyn Booth)는 옥스퍼드대 아랍문학 교수며, 2020년 수상자 미셸 허치슨(Michele Hutchison)은 네덜란드 문학 전문번역가다. 끝으로 2021년 수상자 안나 모스초바키스(Anna Moschovakis)는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 미술대학 문예장착과 교수이자 미국 바드칼리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 수상 번역가들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대학 교육 환경과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외국문학 작품이 번역을 통해 미국 출판시장에 진입하는 공통의 전략과 패턴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상 열 가지 과제와 역량이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의 모든 것을 보여주거나 모두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외국문학 한국어번역가에게 요구되는 과제와는 차원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에게만 요구되는 고도의 역량과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의 역할에 대한 학술적, 사회적 재인식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다양한 차원의 역할과 역량 발휘를 통해 이미 해외 독자들과 소통에 성공한 번역텍스트를 만들어낸 한국문학 영어번역가들에게는 오역 시비에 앞서서 그들 번역이 거둔 성공 비결과 전략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번역비평가가 번역텍스트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역량과 자격을 갖추었는지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의 과제에 대한 학술적, 사회적 인식 전환과 존중은 한국문학 영어번역에 대한 번역비평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 V. 나가는 말

이상에서 한국문학 영어번역가가 수행하고 있는 열 가지 대표적인 과제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의 특수한 역할과 역량, 영향력을 분석해보았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 같은 접근은 한영 문학번역가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을 정의하는 ‘규범적’ 연구의 성격이 결코 아니며,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의 역할과 역량,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들의 다양하고 유의미한 과제들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인식 재고를 목적으로 하며, 번역가들이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정당한 관심과 존중을 확인하고자 한다.

영어권 번역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효과적인 열 가지 과제 중 많은 부분을 이미 초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번역가들이 바로, 한강의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 번역으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 신경숙과 김영하의 작품세계를 해외 문단에 성공적으로 알리고,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영어번역을 아동문학계 노벨상인 ‘국제안데르센상’ 후보에까지 올려놓았던 김지영(Chi-young Kim), 2012년 김혜순의 시집 『전 세계 쓰레기여 단결하라』(*All the Garbage of the World, Unite!*)로 ‘루시엔스트릭 번역상’을 수상한 최돈미(Don Mee Choi), 배수아의 소설 『철수』(*Nowhere to Be Found*) 영어번역으로 2015년 국제펜클럽의 ‘펜번역상’ 최종후보까지 올라갔던 소라 김 러셀(Sora Kim-Russell), 시인 김이듬의 시집 『히스테리아』(*Hysteria*) 영어번역으로 2020년 미국문학번역가협회(ALTA) ‘전미번역상’을 수상한 제이크 레빈(Jake Levine),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Kim Jiyoung, Born 1982*) 영어번역을 통해 2020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 선정 ‘올해 꼭 읽어야 할 소설 100선’ 선정에 기여한 제이미 장(Jamie Chang), 하성란의 소설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Bluebeard's First Wife*) 영어번역으로 2020년 미국의 권위있는 문예지 「퍼블리셔 위클리」의 ‘올해의 책 Top 10’ 선정에 기여한 자넷 홍(Janet Hong), 2021년 영국추리작가협회에서 수여하는 ‘대거상’(The CWA Dagger)의 번역추리소설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The Disaster Tourist*)의 영어번역가 리지 블러(Lizzie Buehler), 그리고 한국문학 영어번역의 선구자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한국문학 교수 브루스 풀턴(Bruce Fulton), 하

버드대 한국문학 교수 데이비드 매켄(David McCann), 서강대 영문학 교수 안선재(Brother Anthony), 작년에 별세한 국내 최초의 외국인 국문학 박사인 경희대 영문과 교수 케빈 오룩(Kevin O'rouke) 등이다.

해외에서 성공한 이들 영어번역가의 번역을 대상으로 어떤 오역의 문제가 있는지, 이들 원어민과 교포 번역가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도가 얼마나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보다 부족한지, 그래서 이 번역들이 왜 세계적인 관심과 인정을 받는 것이 부당한지를 애써 증명해 보이려 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이들의 번역이 왜 해외 독자와 비평가에게 성공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과 전략을 먼저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비평 역량이 매우 필요하다. 성공한 번역은 모두 좋은 번역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성공한 모든 번역에는 이유가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성공한 번역의 이유와 비결을 찾지 못하면, 즉, 성공한 번역본의 고유한 문학적 가치와 완성도를 읽어낼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번역에서 발견되는 오역들이 어떻게, 얼마나 원작의 작품성을 훼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치 야구경기에서 열 번 타석에 들어서서 네 번이나 안타를 치는 경이로운 4할대 타율의 세계적인 야구선수에게, 열 번 중에 고작 네 번 밖에 안타를 치지 못한다고 선수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형편없는 선수라고 비아냥거리는 감독이라면 어쩌면 야구의 규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이 견뎌내야 하는 열악한 환경과 영어번역이 완성되고 출판되는 고통스러운 과정과 노력에 대한 인식 재고를 통해 우리의 무지함을 조금이라도 감추려는 노력만이, 궁극적으로 더 많은 우수한 한국문학 영어번역가를 험난한 한국문학 영어번역의 길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해외에서 K팝이나 K드라마 한류 팬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다양한 방식과 과정은 국내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정통적인 한국어교육방법론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해외 한류 팬들이 만들어내는 팬번역(fan sub)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번역오류를 우리가 폄하하거나 비하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문화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열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기 때문이며,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우리가 문화적 소통과 배려의 가치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국문화를 수용하고 즐기는 방식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결정하려 하

지 않으며, 그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K팝 가사나 K드라마 대사에 담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문화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방식을 우리가 평가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과 존중만이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그들의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의 과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동일한 고민과 관심, 믿음이 필요하다. 한국문학의 영어번역도 영어번역의 진정한 수요자면서 수용의 주체가 되는 현지의 독자와 현지의 출판계, 그리고 현지의 번역가들이 좀 더 자유롭게 그들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즐기면서 자가발전할 수 있도록 기다리며 응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50년, 100년 후에도 뒤늦게 가치가 재발견되고 다시 읽힐 수 있는 원작과는 달리, 20년, 30년이라는 짧은 번역 유효기간 안에 독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번역으로 대체되거나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번역텍스트에게 독자와의 소통이라는 생명력을 부여하는 역할, 그 어려운 일을 자꾸 해내는 번역가들의 열정을 우리가 존중과 애정으로 번역하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진정한 ‘번역가의 과제’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곽효환. (2011). 「2000년 이후 한국문학 콘텐츠의 세계화 경험과 방향」. 『비교한국학』, 19(3), 177~200.
- 김가희. (2020). 「한영문학번역가의 위상 제고를 위한 번역재량에 관한 소고—가다머(Gadamer)의 철학적 해석학 이론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33, 260~273.
- 김대중. (2016). 「『채식주의자』 번역 속 의역/오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번역가의 과제 연구」. 『인문과학연구』, 51, 31~59.
- 김자경. (2021). 「한국문학 번역에서 문학 번역가의 역할: 브루스 폴턴, 주찬 폴턴의 『한 명』 번역 결정부터 One Left 출판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2(1), 47~77.
- 심재기. (2003). 「한국 문학의 세계화 정책—문화번역가 양성을 위한 제언」.

- 『독일언어문학』, 22, 347~372.
- 심재기. (2006). 「한국문학의 외국어번역에 대한 국내 번역비평의 동향」. 『독일언어문학』, 34, 237~266.
- 윤성우. (2007). 「발터 벤야민(W. Benjamin)의 번역론에 관한 소고」. 『번역학연구』, 8(1), 175~192.
- 윤조원. (2011). 「번역자의 책무 - 발터 벤야민과 문화번역」. 『영어영문학』, 57(2), 217~235.
- 윤지관. (2013). 「문학번역평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통역과 번역』, 15(2), 175~190.
- 이인규. (2015). 「번역비평에서 오역 지적의 문제」. 『번역학연구』, 16(5), 89~112.
- 이영훈. (2019). 「베르만 대(對) 메쇼닉 - 번역학, 번역비평, 벤야민을 중심으로 한 비교 고찰」. 『불어불문학연구』, 120, 453~486.
- 이형진. (2009). 「수용 주체로서의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영어번역가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26, 223~244.
- 이형진. (2018).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논란과 논쟁을 번역하다」. 『번역학연구』, 19(4), 185~206.
- 정호정. (2012). 「문학번역의 수용과 평가 -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영역본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2), 255~281.
- 조재룡. (2011). 「이해와 해석, 번역가의 소임, 낯섦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평문학』, 42, 427~462.
- 최수연. (2017). 「한국 현대 소설의 영어 번역 출판 전략」. 『통번역학연구』, 21(1), 239~274.
- Hoffman, J. (2007. 04. 15) Comparative literature. *New York Times Book Review*, April 15, 2007, 27.
- Kellman, S. G. (2019). A Conversation with Chad W. Post on literary translations in the United States. *Translation Review*, 105(1), 4.
- Paloposki, O. (2017). In search of an ordinary translator: translator histories, working practices and translator - publisher relations in the light of archival documents. *The Translator*, 23(1), 31~48.

## &lt;인터넷 자료&gt;

- 김승일. (2020. 01. 21). 출협, 출판계 2018년 생산통계보고서 『2019 한국출판연감』 발간.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227>에서 2021년 9월 15일 검색.
- 신준봉. (2011. 04. 09). 신경숙 『엄마를...』 아마존 소설 톱 10 이끈 번역자 김지영씨. <https://www.joongang.co.kr/article/5322117>에서 2021년 8월 20일 검색.
- 양용비. (2016. 05. 17). 한강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수상, 번역가 테보라 스미스는...“한국어 유창하진 않아”.  
<https://www.etoday.co.kr/news/view/1330620>에서 2021년 8월 20일 검색.
- 어수웅. (2011. 04. 06). 신경숙 번역한 김지영, 변호사 그만두고 번역일 하는 것은....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06/2011040600825.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06/2011040600825.html)에서 2021년 8월 15일 검색.
- 이영미. (2011. 10. 09). 미국판 낸 크노프사 데서 부사장, ‘엄마를 부탁해’ 한 챕터만 읽으려다 계속 읽었고.. 바로 출판 결심.  
<https://news.v.daum.net/v/20111009191004564?f=o>에서 2021년 8월 20일 검색.
- Armitstead, C. (2018. 01. 15). Lost in (mis)translation? English take on Korean novel has critics up in arms. Retrieved August 10, 2021, from <https://www.theguardian.com/books/booksblog/2018/jan/15/lost-in-mistranslation-english-take-on-korean-novel-has-critics-up-in-arms>
- Deborah Smith(translator). Retrieved August 18, 2021, from [https://en.wikipedia.org/wiki/Deborah\\_Smith\\_\(translator\)](https://en.wikipedia.org/wiki/Deborah_Smith_(translator))
- 10 Best Japanese Novels to Read in English. (2020, July). Retrieved September 5, 2021, from <https://jw-webmagazine.com/japanese-novels/>

- Translator's Charter in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Traducteur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ranslators. (n.d). Retrieved September  
10, 2021, from <https://www.fit-ift.org/translators-charter/>
- The Vegetarian* Wins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2016. (2016, May).  
Retrieved September 8, 2021, from  
<https://www.man.com/2016-man-booker-international-prize-winner>
- UNESCO's Recommendation on the Legal Protection of Translators and  
Translations. (n.d). Retrieved September 10, 2021, from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089&URL\\_DO=DO\\_T  
OPIC&URL\\_SECTION=201.html](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08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 Zitwer, B. (2021. 10. 05). *Global Not Local* (지역을 넘어 세계로). 한국통역번  
역학회 바바라 지트위(Barbara J. Zitwer) 온라인 특강.

이름: 이형진  
소속: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번역학전공 교수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진리관 303호  
이메일: jinlee@sookmyung.ac.kr

논문투고일: 2021년 10월 10일

심사완료일: 2021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11월 24일